

# KIA “브룩스 너마저 …” 대마초 연루 ‘퇴출’

### 미국에 주문한 전자담배서 대마초 성분 검출 세관 조사 KIA, 임의탈퇴 요청 … 브룩스 “구단과 팬들에 너무 죄송”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대마초와 연루돼 퇴단 조치됐다.

KIA는 “세관 조사결과 브룩스가 미국으로부터 주문한 전자담배에서 지난 8일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 조사를 받게 됐다”며 “KBO에 브룩스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전자담배가 문제가 됐다. 브룩스는 지난 8일 세관 검사 과정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됐다는 관계 당국의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

브룩스는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문제가 된 전자담배는 대마초 성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문했다”며 “나의 과실로 팬과 구단, 팀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돼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KIA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KBO 클린베이스본센터에 신고했고, 임의탈퇴 공시도 요청했다.

구단이 퇴단 조치를 하면서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팀은 물론 KBO에 최악의 악재가 됐다.

브룩스는 KIA의 ‘에이스’다.

한국에서의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 가족의 교통사고로 일찍 시즌을 마감했지만 23경기에서 2.5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11승 4패를 수확했다.

올 시즌에도 팔꿈치 부상으로 한 달 가량 공백기가 있었지만, 전반기 13경기에 나와 78이닝을 소화하면서 3.35의 자책점과 함께 3승 4패를 기록했다.

지난 3일 KT위즈와의 연습경기에서 80구로 7이닝을 2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후반기 준비도 끝났다.

전반기 맹행과 브룩스의 동반 이탈로 어려운 행보를 했던 KIA는 후반기 시작부터 다시 선발고민에 빠졌다.

KBO리그에도 초대형 악재다.

KBO는 리그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두산·NC 선수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야기된 ‘코로나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행평성 논란에도 KBO가 원칙을 깨고 리그를 중단시키면서 못매를 맞았고, 이어 원정숙소 숙박 문제가 불거졌다. NC는 물론 한화, 키움까지 상황이 번지면서 KBO는 요란한 휴식기를 맞았다.

슬판 논란에 휩싸인 한현희(키움)와 박민우(NC)가 국가대표 자진 사퇴라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고, 대체 선수 선발 논란 속에서 도쿄로 향했던 한국야구대표팀은 냉정한 현실도 마주했다.

새로운 변화와 시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경쟁력은 떨어졌고 결과는 물론 과정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야구’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좋은 경기력과 프로다운 모습으로 반전을 꾀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9일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이날 키움 외야수 송우현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로야구’는 다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설상가상 브룩스 사건까지 터지면서 프로야구는 출범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프로야구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이어 대마초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리그는 암흑기 갈림길에 섰다.

KBO와 각 구단의 승방망이 처벌 속, 프로야구 선수들의 한심한 인식으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KIA가 강수를 두기는 했지만 이미 옆질러진 물이다.

눈에 빠진 KBO가 위기의 2021년을 수습할 수 있을까?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브룩스



이의리

# ‘국대 에이스’ 이의리 무거워진 어깨

### T 타이거즈 전망대 오늘 한화전 임기영 선발 후반기 첫 승 사냥 나서

올림픽 휴식기를 끝낸 KBO리그가 재개된다. ‘호랑이 군단’은 안방에서 한화와 후반기 첫 경기를 치른다.

지난 7월 11일 일정을 끝으로 중단됐던 KBO리그가 10일 다시 시작된다. KBO는 올림픽 휴식기에 앞서 두산·NC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코로나 사태’로 1주일 먼저 리그를 맞았다.

KIA 타이거즈는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임기영이 선발로 나와 후반기 첫 승 사냥에 나선다.

후반기 초반 싸움의 관건은 역시 ‘감’이다. KBO는 7월 초반, 날씨와 코로나19로 들쭉날쭉한 경기 일정을 소화했다. 여기에 리그까지 조기 중단되면서 한 달 가까이 공백기를 가졌다.

물론 각 팀은 연습 경기와 퓨처스 리그 경기 등을 통해 실전을 소화했지만 경기 감각이 완벽하지는 않다.

어느 팀이 빠르게 감을 잡느냐에 따라서 후반기 초반 흐름은 물론 최종 성적도 달라진다. 빠듯한 일정도 변수다.

| KBO 중간순위 |     | (9일 현재) |    |   |    |      |
|----------|-----|---------|----|---|----|------|
| 순위       | 팀명  | 경기      | 승  | 무 | 패  | 게임차  |
| 1        | KT  | 75      | 45 | 0 | 30 | 0.0  |
| 2        | LG  | 75      | 43 | 0 | 32 | 2.0  |
| 3        | 삼성  | 80      | 45 | 1 | 34 | 2.0  |
| 4        | SSG | 80      | 42 | 2 | 36 | 4.5  |
| 5        | NC  | 74      | 37 | 2 | 35 | 6.5  |
| 6        | 키움  | 80      | 41 | 0 | 39 | 6.5  |
| 7        | 두산  | 74      | 36 | 0 | 38 | 8.5  |
| 8        | 롯데  | 77      | 32 | 1 | 44 | 13.5 |
| 9        | KIA | 74      | 31 | 0 | 43 | 13.5 |
| 10       | 한화  | 79      | 29 | 0 | 50 | 18.0 |

리그를 조기 중단시켰던 KBO는 144경기 일정 소화를 위해 후반기에 한시적으로 연장전을 없앴다. 대신 최대 9연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더도 25일부터 일찍 도입된다.

선발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연장전 없이 9회에 승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선발 싸움을 통해 초반부터 승기를 가져와야 한다. 또 최대 9연전과 더불어더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선발진이 탄탄하게 갖춰진 팀이 유리하다.

하지만 선발진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KIA는 브룩스 퇴단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맞았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전자담배에서 대마 성분이 나오면서 브룩스가 임의탈퇴 조치됐다.

대표팀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이의리가 팀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이의리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슈퍼루키’의 면모를 보여줬다. 부담 많은 상황에서도

미니공화국과 미국을 상대로 두 차례 선발로 나서 5이닝 3실점, 5이닝 2실점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10이닝에서 1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일본 야마모토(11이닝 18탈삼진)에 앞서 탈삼진 1위를 기록했다.

이의리는 첫 국제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하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국은 4위에 그치면서 지난 8일 밤 소득 없이 돌아왔다.

3일 휴식 뒤 부담감 많은 두 번째 등판까지 소화한 만큼 전체적인 컨디션과 몸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타석에서는 베테랑 최형우가 해줘야 한다. 시즌 초반 망막 이상으로 고전했던 최형우는 상봉세에서 리그 중단을 맞았다. 최형우가 어수선한 팀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한다.

팀은 물론 최형우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타점’이다. 최형우는 후반기 타점 기록에도 도전한다. KBO 리그 통산 타점 2위 자리와 함께 역대 두 번째 1400타점이 최형우가 노리는 목표다.

최형우는 전반기까지 1359타점을 수확했다. 통산 타점 2위 양준혁(1398점)의 기록이 눈앞에 있다. 이 고지를 넘어서면 두 번째 1400타점 주인공 자리까지 바로 노려볼 수 있다.

KIA가 ‘브룩스 악재’를 딛고 후반기에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서울 지동원에 복귀골 내줘 ‘최하위’

### K리그2 전남 대전과 무승부 2위 자리 유지

광주FC가 지동원에게 K리그 복귀골을 내주면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광주는 지난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K리그2 2021 23라운드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전반 4분 엄지성이 상대 페널티지역에 진입한 뒤 고광민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졌다. 기대했던 페널티킥은 선전되지 않았고, 잠시 뒤 아쉬운 실점을 기록했다.

전반 8분 조영욱의 크로스를 받은 지동원이 문전에서 오른발로 공의 방향을 바꿔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소속이었던 2011년 6월 11일 고별전에서

골을 기록했던 지동원은 서울 유니폼을 입고 10년 1개월 28일만에 K리그 득점에 성공했다.

광주가 후반 중반 때서운 공세를 펼쳤다. 후반 19분 역습 상황에서 헤이스가 슈팅을 날리며 상대를 압박했다. 2분 뒤에는 엄지성이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 막혔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도 이어졌다. 이요뜸이 오른쪽에서 바로 골대를 겨냥해 프리킥을 날렸지만 이번에도 골키퍼에 맞았다.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탄식을 쏟아냈다.

이요뜸의 크로스를 받은 송승민이 문전에서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했지만, 공은 골키퍼 품에 안겼고 경기는 0-1패로 끝났다.

같은 시간 안방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한 전남드래곤즈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전남은 ‘레트로데이’로 진행된 K리그2 2021 24

라운드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전남은 1997년 유니폼, 대전은 2001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전반전을 소득 없이 끝낸 뒤 후반 11분 김현욱이 프리킥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직접 골대를 겨냥했다. 매섭게 날아간 공은 아쉽게 골키퍼에 맞고 나왔다.

후반 29분에도 김현욱이 아쉬움을 삼켰다. 오른쪽 측면에 있던 김병호가 중앙에서 전진하던 사무엘에게 공을 찰라졌다. 사무엘이 힐페스로 김현욱에게 공을 넘겼고 슈팅까지 연결됐지만 아쉽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결국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고 1점씩 나눠 가진 전남과 대전은 그대로 2-3위 자리를 유지했다.

한편 김현욱은 이날 선발 출전하면서 자신의 K리그 통산 100번째 경기를 치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펜싱 은메달 강영미, 12일 챔스필드서 시구

2020 도쿄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강영미(36·광주서구청)가 12일 시구자로 챔피언스필드를 찾는다.

KIA 타이거즈는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에 빛나는 강영미를 초청해 승리기원 시구 행사를 한다.

여자 에페팀 ‘만인나’인 강영미는 최인정, 송세라, 이혜인과 함께 세계랭킹 1위 중국을 제압하고 단체전 결승에 올라,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9년 만에 은메달을 획득했다.

선수단은 시상식에서 ‘월계관 반지’ 세리머니를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었다.

강영미는 이날 7번이 마킹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 KIA 선수단에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편 11일에는 양궁에서 우리나라 하계 올림픽



강영미

사상 첫 3관왕을 이룬 안산(20·광주여대)이 시구자로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오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